

故 김만수 씨 딸 영진 양에게 보내는 서신

김영진 양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양의 글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애끓는 하소연을 내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허망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단란했던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대통령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영진 양 가족의 슬픔을 가슴깊이 느낍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 분 고인의 비보를 보고받고 우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영진 양 가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수습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이라크 현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에 대한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진 양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영진 양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의 심정이 안타깝고 간절하다 해도 가족들의 참담함에 비하면 그 만분의 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진 양,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영진 양이 힘을 내야만 어머니도 동생도 다시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진 양도 동생도 훌륭한 따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거듭 위로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